

어문 규정

1. 한글맞춤법

소쩍새 해쓱하다 가끔 거꾸로 훨씬 담백

국쑈(x) -> 국수(o) 깎뚜기(x) -> 깎두기(o)

색썬(x) -> 색시(o) 짝뿔썩썩(x) -> 짝뿔썩썩(o)

법썩(x) -> 법석(o) 읊썩(x) -> 읊시(o)

덜저고리 웃어른 사뭇 얼핏 자칫하면

계수(桂樹) 혜택(惠澤) 핑계

계송(僞頌) 계시판(揭示板) 휴계실(休憩室)

비률(x) -> 비율(比率)(o) 전률(x) -> 전율(戰慄)(o)

실패률(x) -> 실패율(失敗率)(o)

백분률(x) -> 백분율(百分率)(o)

가정란(家庭欄) 어린이란, 어머니란, 뉴스란

커머거리 꼬락서니 끄트머리 넓치 울무

오죽이 썰과리 딱따구리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듯이 깨끗이

공공이 더욱이 생긋이 일찍이 해죽이

경황없다 주책없다 부질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반질고리(반느질~)

전셋집 전세방

곳간(庫間) 찻간(車間) 뒷간(退間) 횡수(回數) 숫자(數字)

셋방(賃房)

(본말) (준말)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적지 않은 적잖은

(본말) (준말)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가하다 가타

(본말) (준말)

다정하다 다정타

정결하다 정결타

흔하다 흔타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생각하다 못해 생각다 못해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못하지 않다 못지 않다

섬섬하지 않다 섬섬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겉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걸상 등

이사장 및 이사를 사과·배·귤 등등 사과·배 등속

부산·광주 등지

*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깨끗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적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번번이 툭툭이 축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술직히

가만히 각별히 소홀히 과감히 꼼꼼히 열심히 급급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 본음으로 나는 것

승낙(x) -> 승낙(承諾)(o) 만란(x) -> 만난(萬難)(o)

안령(x) -> 안녕(安寧)(o) 분노(x) -> 분노(忿怒)(o)

토논(x) -> 토론(討論)(o) 오육십(x) -> 오륙십(五六十)(o)

* 속음으로 나는 것

수낙(x) -> 수락(受諾)(o) 쾌낙(x) -> 쾌락(快諾)(o)

허낙(x) -> 허락(許諾)(o) 곤난(x) -> 곤란(困難)(o)

논난(x) -> 논란(論難)(o) 의녕(x) -> 의령(宜寧)(o)

의론(x) -> 의논(議論)(o) 오유월(x) -> 오뉴월(五六月)(o)

목과(x) -> 모과(木瓜)(o) 십왕(x) -> 시왕(十王)(o)

십월(x) -> 시월(十月)(o) 초팔일(x) -> 초파일(初八日)(o)

희노애락(x) -> 희로애락(喜怒哀樂)(o)

십방정토(x) ->十方淨土(o)

회녕(x) -> 회령(會寧)(o) 대노(x) -> 대로(大怒)(o)

갈게, 갈거야, 갈까, 갈소냐, 갈꼬

삼부름꾼 지게꾼 때깎 낫깎 성깎 귀때기 불때기 판자때기

뒤꿈치 팔꿈치 이마배기 코배기 객쩍다 겸연쩍다

*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 돌로 가름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거름 풀을 씌인 거름

걸음 빠른 걸음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걸히다 외상값이 잘 걸힌다.

걸잡다 걸잡을 수 없는 상태

그러므로(그러니까)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럼으로(씨)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씨) 은혜에(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답한다.

노름 노름판이 벌어졌다.

놀음(놀이) 즐거운 놀음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놀이다 고무줄을 놀인다.

놀리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다리다 옷을 다린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달히다 문이 저절로 달혔다.

닫히다 문을 힘껏 닫혔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목거리 목거리가 덧났다.

목걸이 금 목걸이, 은 목걸이

바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받치다 우산을 받치고 간다.

받히다 쇠뿔에 받혔다.

발치다 술을 체에 발친다.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반듯이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부딪히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혔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부치다 힘이 부치는 일이다.

편지를 부치다.

논밭을 부친다.

빈대떡을 부친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인쇄에 부치는 원고

상춘 집에 속식을 부친다.

붙이다 우표를 붙이다.

책상을 벽에 붙였다.

흥정을 붙인다.

불을 붙인다.

감시원을 붙인다.

조건을 붙인다.

취미를 붙인다.

별명을 붙인다.

시키다 일을 시킨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히다.

아름 세 아름 되는 돌래

알음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알 앞이 힘이다.

안치다 밥을 안친다.

앉히다 뒷자리에 앉힌다.

어름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얼음 얼음이 얼었다.

이따가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린다.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인다.

조리다 생선을 조리다. 통조림, 병조림

줄이다 마음을 줄인다.

주리다 여러 날을 주렸다.

줄이다 비용을 줄인다.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노라고 공부하노라고 밤을 새웠다.

-느니보다(어미) 나를 찾아 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는 이보다(의존 명사)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으)리만큼(어미)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

-(으)만큼(의존 명사)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으)러(목적) 공부하러 간다.

-(으)려(의도) 서울 가려 한다.

-(으)로서(자격)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으)로써(수단)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

-(으)으로(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으, -음)으로(씨)(조사)

그는 믿음으로(씨) 산 보람을 느꼈다.

【문장부호법】

1. 가운뎃점(·)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1) 청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 쓴다.

철수·영이, 영수·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뭉돌이를 하였다.

공주·논산, 천안·아산·천원 등 각 지역구에서 2 명씩 국회의원을

뽑는다.

시장에 가서 사과·배·복숭아, 고추·마늘·파, 조기·명태·고등어를

샀다.

(2)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낱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

3·1 운동 8·15 광복

(3)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

총복·총남 두 도를 합하여 충청도라고 한다.

동사·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

2. 큰따옴표(“ ”), 겹낫표(『 』)

가로쓰기에는 큰따옴표, 세로쓰기에는 겹낫표를 쓴다.

대화, 인용,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낸다.

(1)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에 쓴다.

"전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책을 보았을까?"

"그야 등잔불을 켜고 보았겠지."

(2)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쓴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 라고 하였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한 학자가 있다.

3. 작은따옴표(‘ ’), 낫표(「 」)

가로쓰기에는 작은따옴표, 세로쓰기에는 낫표를 쓴다.

(1)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때에 쓴다.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

다.'고 합니다.'

(2) 마음 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 쓴다.

'만약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

(3)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쓰기도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4. 소괄호(())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쓴다.

커피(coffee)는 기호 식품이다.

3·1 운동(1919)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다.

"무정(無情)"은 춘원(6·25 때 납북)의 작품이다.

니체(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5. 대괄호([])

뒤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 쓴다.

나이[年歲] 낱말[單語]手足[손발]

2. 시간과 관련된 말

(1) 십이지간

간지	띠	시간	간지	띠	시간
子(자)	쥐	23-01(삼경)	午(오)	말	11~13
丑(축)	소	01~03(사경)	未(미)	양	13~15
寅(인)	호랑이	03-05(오경)	申(신)	원숭이	15~17
卯(묘)	토끼	05~07	酉(유)	닭	17~19
辰(진)	용	07-09	戌(술)	개	19-21(초경)
巳(사)	뱀	09~11	亥(해)	돼지	21-23(이경)

(2) 하루의 시간

새벽 : 갓밤이, 달구리, 닭울녁

아침 : 동트기, 아침나절

한낮 : 낮때, 낮창, 낮결

저녁 : 해때, 해름(해거름), 어스름, 망거미

밤 : 온밤

(3) 날짜

朔(삭) : 초하루(朔日삭일)-초하룻날 /

개월(三朔삼삭)-3개월

旬(순) : 열흘(旬判순간)-열흘마다 펴 냈, 또는 그 간행물

望(망) : 보름(望閏(망간)-[보름 무렵] /

既望(기망) : 음력[16일]

晦(נם) : 스무날

晦(회) : 그믐날(음력에서 그 달의 맨 마지막 날)

-오 : 해·달 등의 말 뒤에 붙어 ‘등안’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날포 : 하루 정도의 시간

달포 : 한 달 정도의 시간

해포 : 1년 정도의 시간

3. 나이를 나타내는 말

冲年(충년) : 10살 안팎의 어린 나이

志學(지학) : 15세

瓜年(과년) : 여자가 혼가에 이른 나이(여자 나이 16세) /

버슬의 임기가 다한 해(남자 나이 64세)

芳年(방년), 妙年(묘년) : 20살 안팎의 꽃다운 여자 나이

弱冠(약관) : 남자 나이 20세

而立(이립) : 30세

二毛(이모) : ‘이모지년(二毛之年)’의 준말. 32세

不惑(불혹) : 40세

知命(지명), 知天命(지천명), 艾年(애년) : 50세

耳順(이순) : 60세

華甲(화갑), 回甲(회갑), 環甲(환갑), 望七(망칠) : 61세

進甲(진갑) : 62세

古稀(고희), 從心(종심), 稀壽(희수), 稀年(희년) : 70세

4. 날씨 와 관련된 말

(1) 바람과 관련된 말

갈마바람 : 서남풍의 뱃사람 말

건들바람 : 초가을에 선들전을 부는 바람

고추바람 : 몹시 찬 바람

늑새바람 : 북동풍의 뱃사람 말

원새바람 : 북동풍

높하늑바람 : 북서풍의 뱃사람 말

원마파람 : 동남풍의 뱃사람말. 원마, 뜬바람, 셋마파람

살바람 : 좁은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황소바람]

색바람 : 초가을에 선선히 부는 바람

[소소리바람] : 초봄에 제법 차갑게 부는, 살 속으로 기어드는 차고
음산한 바람

왜바람 : 일정한 방향 없이 이리저리 부는 바람

피죽바람 : 모기철에 아침에는 동풍이 불고, 저녁에는 서북풍이 부
는 상태

(2) 비와 관련된 말

개부심 : 장마에 큰물이 난 뒤, 한동안 쉬었다가 몰아서 내리는 비
건들장마 : 초가을에 비가 쏟아지다가 번쩍 개고 또 오다가 다시 개
는 장마

그믐치 : 음력 그믐에 내리는 비나 눈

[는개] : 안개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

먼지점 : 비가 겨우 먼지나 날리지 않을 정도로 오는 것

목비 : 모낼 무렵에 한목 오는 비

발비 : 빗방울의 발이 보이도록 굵게 내리는 비

여우비 : 별이 난 날 잠깐 뿌리는 비

[웃비] : (날이 아주 갠 것이 아니라) 한창 내리다가 잠시 그친 비
작달비 : 굵직하고 거세게 퍼붓는 비

(3) 눈과 관련된 말

갈눈 : 한 길이나 뿔 만큼 많이 쌓인 눈

[누리] : 싸락눈보다 크고 단단한 덩이로 내리는 눈. 우박

마른눈 : 비가 섞이지 않고 내리는 눈

순눈 : 쌓인 그대로 있는 눈

자국눈 : 겨우 발자국이 날 정도로 적게 내린 눈

(4) 안개 · 서리와 관련된 말

물안개 : 비 오듯이 많이 끼는 안개

[해미] : 바다 위에 낀 매우 짙은 안개

된서리 : 늦가을에 아주 되게 내린 서리

무서리 : 그 해의 가을 들어 처음 내리는 묽은 서리

[상고대] : 나무나 풀에 눈같이 내린 서리

서리꽃 : 유리창 따위에 생긴 수증기가 얼어붙어 꽃처럼 무늬를 이
룬 것

5. 길과 관련된 말

[고실길] : 마을의 좁은 골목길, 좁은 골짜기 사이의 길

길라잡이 : 길을 인도하는 사람

[길쇠] : 길의 가장자리. 길가

낭길 : 낭떠러지를 끼고 난 길

[도린길] :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모퉁이 : 산모퉁이의 휘어 돌린 곳

순논길 : 눈이 와서 덮인 후에 아무도 아직 지나지 않은 길

자드락길 : 나지막한 산기슭에 경사지게 있는 좁은 길

조롱목 : 조롱 모양으로 된 길목

허방 : 길 가운데 움푹 패인 땅

6. 사람과 관련된 말

(1) 사람을 가리키는 말

간나위 : 간사스러운 사람

감때꾼 : 생김새나 모양이 매우 험상궂고 몸시 사나운 사람

고름골 : 마음이 몽충하여 하는 것이 문문하지 못한 사람

고명말 : 아들 많은 집의 외말

[고삭부리] :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는 사람, 기력이나 체질이 약해
늘 병치레를 하는 사람

구나방 : 말이나 행동이 거칠고 예절이 없는 사람

굴공 : 몸이 허약한 사람

까리 : 일정한 직업이 없이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부랑자

늦깎이 : 사리를 남보다 늦게 깨달은 사람 / 나이가 들어서 중이 된
사람

늦보 : 사람됨이 천하고 더러운 사람

대갈마치 : 온갖 어려움을 겪은 아주 야무진 사람

[만우방] : 예의나 영치가 없는 사람들의 무리

망석중 : 남이 부추기는 대로 따라 노는 사람

모도리 : 조금도 반쯤없이 아주 야무지게 생긴 사람

[벽창호] : 고집이 세고 성질이 무뎡뚱한 사람

[안장자기] : 남의 집에서 잠을 자면서 일을 도와 주며 사는 여자

책상물림 : 글만 읽다가 세상에 치을 나서서 물정에 어두운 사람

햇바이 : 지어미가 있는 남자. 유부나

햇어미 : 지아비가 있는 여자. 유부녀

(2) 사람의 태도나 성격과 관련 말

감굿다 : 음충맞게 험상굿다.

없었다 : 조금 부끄럽다. 담이 작고 겁이 많다.

케란깝다 : 행동이 건방지고 주체 없다.

[곰살굿다] : 성질이 부드럽고 다정스럽다.

[버르집다] : 작은 일을 크게 벌리다.

곰상스럽다 : 성질이나 행동이 잘고 좀스럽다.

꿀밋하다 : 차림새나 인물이 깨끗하고 미끈하여 시원하다.

[무람없다] :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여 버릇없다.

살갑다 : 겉으로 보기 보다는 마음이 너르다./ 상냥하고 부드럽다.

숫되다 : 순진하고 어수룩하다.

웅숭길다 : 성품이 온화하고 도량이 넓다.

언어의 본질

1. 자의성

- 동일한 의미를 표시하는 음성이나 각 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 동음 이외어, 다의어, 이음 동의어, 유의어 등이 있다.
- 언어의 의미와 음성의 변화가 따로 이루어진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
지만 역시 필연성은 없다.

◦ ‘사랑’을 가리키는 말 : [sarang](한국어), [lav](영어), [li : ba](독
일어), [amu : r](프랑스어), [āi](중국어), [ljubóv](러시아어)

◦ ‘물다’ : 埋, 問, 染

◦ 죽다 - 사망하다 - 숨지다

◦ <자음> <모음> <가운> <후성반 변화>

◦ ‘어리다’ : 愚>幼(의미만 변화)

◦ 꼬꼬오→ [꼬꼬꼬](일본어), [커커두들두](영어), [꼬꼬리꼬](프랑
스어), [키케리키](독일어)

2. 사회성

언어 기호는 한 언어 사회 내에서 어떤 개념을 특정한 소리를 사
용하여 지시하자는 약속이므로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 한 개인이 ‘법(法)’을 ‘뱀’이라고 발음하는 것이나 ‘발(足)’을 [발 :]
로 발음하는 것, ‘철수는 어제 공을 찬다’나 ‘너는 진지 먹었니?’와
같이 문법의 규범에서 벗어난 문장을 쓰는 것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

3. 역사성

언어 기호가 비록 그 사회 구성원의 약속으로 성립된 관습이라 해
도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인에 의해 신생·성
장·사멸하기도 한다.

◦ ‘지하철, 인공 위성, 컴퓨터, 원자로, 인공 지능’ 등의 단어가 세
롭게 생긴것.

◦ ‘<자음>’이 ‘<가운>’, ‘<물>’이 ‘<물로>’, ‘<거우루>’가 ‘<거울>’로 변한 것.

◦ ‘사랑하다’가 ‘愚’에서 ‘愛’로 뜻이 축소된 것, ‘어리다’가 ‘愚’에서
‘幼’로 뜻이 바뀐 것, ‘얼굴’이 ‘體’에서 ‘顏’으로 뜻이 축소된 것.

◦ ‘<즈르[千], 슈름(우산), 나조(저녁), 녀름짓다(농사짓다)’ 등의 단
어가 없어진 것.

4. 본질성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
현한다. (=불연속성)

◦ 무한한 색깔의 연속체인 무지개를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의 7가지 색깔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

◦ 정확한 구획(區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얼굴을 ‘뺨, 턱, 이마’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

◦ 분명한 경계가 없는 시간의 흐름을 나누어 묶은 해가 가고 새해
가 온다고 생각하여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 하고 12월 31일과 1월
1일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

5. 추상성

수많은 종류의 지시물로부터 한 지시물의 공통 속성만을 뽑아내는
과정을 추상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념(단어)
이 형성된다.

◦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 ‘색깔’

6. 개방성

- 언어를 사용하여 문자 그대로 무한(無限)에 가까운 생각을 문장으
로 표현할 수가 있다.
- 말은 우리가 암기해서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은 이와 똑같은 문장을 어디선가 들어 본 적이 없는데도 새
로이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듣는 사람 역시 그 의미를 금방 이해
해 낼 수가 있다.
-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고가 미치는 범위에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다.(상상의 사물이나 추상적 개념을 표현할 수 있음)
◦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에, 푸른 숲들이 자라고, 길게 누운 산맥
의 등성이마다에는 이른 잠을 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처럼 무한히 긴 문장을 만들 수 있는것.
◦ ‘투명인간, 용, 봉황새, 손오공, 유토피어’ 등 상상의 사물을 표현
하는 것.
◦ ‘희망, 불행, 평화, 위기, 의문, 제시, 제한, 효과, 실효성’ 등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는 것.

언어의 기능

(1) 표현적(表現的) 기능

- 화자의 사실적 판단 전달
예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
-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전달
예 어서 출발하시지요.
-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예 이 책은 참 재미있다.
- 판단에 대한 확신성 여부 표현
예 철수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
- 화자의 감정 표현
예 나는 조그만 일에도 괴로워했다.

(2) 감화적(感化的) 기능(지령적, 환기적 기능) : 듣는 사람을 감화
하여 실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기능.

1) 직접 지령: ① 명령 형식 예 “좀더 일찍 일어나라.”

② 청유 형식 예 “좀더 일찍 일어나자.”

2) 간접 지령:

- 의문 형식 예 “좀더 일찍 일어날 수 없겠니?”
- 평서형 예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을 위하여 좋다.”
- 비완결 진술 예 교통 표지 : ‘차선 멈추’, ‘일방 통행’
- 표어, 광고, 법률, 단체 협약

- (3) **사회적(社交的) 기능(친교적 기능)** : 단순히 언어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원만한 사회 생활을 유지하는 데 윤희유와 같은 기능
- ① 안부를 묻는 말, 날씨와 관련된 발화, 기타 인사치레의 말
- 예 ◦ “밤새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 “날씨 참 사납군요.”
- “진지 잠수하셨습니까?”
- ② 존경이나 겸양의 뜻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널리 행해지는 높임법의 사용
- 예 “어린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 (4) **표출적(表出的) 기능** : 언어를 기호 이전의 용법으로 거의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것.
- 예 “아이구, 아파!” / “에구머니나!”

- (5)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
- 예 신문, 서적, 방송, 테이프, 음반, CD

- (6) **전달의 기능** : 객관적인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 이다.

- (7) **미적(美的) 기능[詩의 기능]** : 화자가 말을 할 때 청자가 듣기 좋게 그 말을 아름답게 하려는 노력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
- 예 ◦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

- (8) **관어적(關語的) 기능(초언어적 기능)** : 언어와 언어끼리 관계하는 기능으로 말을 통해 새로운 말을 학습하고 지식을 증진하는 기능이다.
- 예 ◦ 영어의 ‘father’는 우리말의 ‘아버지’라는 말이다.
- 자당(慈堂)은 상대방의 어머니를 높이어 일컫는 말이다.
- 물의 분자식은 H₂ O이다.

국어의 개념과 특징

1. 국어의 개념

- (1) 국어는 국가를 배경으로 하여 특수성을 가진 개별적·구체적 언어이다.
- (2) 국어는 국민 대다수의 통용어이다.
- (3) 국가 통치상·국민 교육상의 공용어이자 공식어이다.
- (4) 국어는 표준어라야 한다.
- (5) 한 국가에서 2가지 이상의 언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예 스위스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국어로 인정하고 있다.

2. 표준어

- (1) 표준어 사정 원칙(標準語査定原則)
- ① 계층적 조건 : 교양 있는 사람들
- ② 시대적 조건 : 현대
- ③ 지역적 조건 : 서울말
- (2) 표준어의 기능
- ① 통일의 기능
- ② 독립의 기능
- ③ 우월의 기능
- ④ 준거의 기능

3. 국어의 특징

* 음운상(音韻上) 특징

- (1) 자음의 3종 체계[三枝의相關束] :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
- *인도 유럽 계통의 언어 : 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대립하는 이중체계

- 예 달(月) - 딸(女兒) - 탈(假面)
- (2) 유음(流音)의 특성 : /ㄹ/을 발음할 때 설전음[ㄹ]과 설측음[l]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
- (3) 두음 법칙(頭音法則)
- (4) 음절 끝소리 규칙 : 7대표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ㅇ/
- (5) 모음 조화
- (6) 음운의 동화 작용
- (7) 음상(音相)의 차이에 따라 어감고 의미가 달라진다.
- ① 자음의 경우 : 예사소리보다는 된소리가, 된소리보다는 거센소리가 강한 느낌을 나타낸다.
- 예 빙빙-뽕뽕-핑핑, 뽕뽕하다-통통하다
- ② 모음의 경우 :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에 비하여 ‘작고 밝고, 경쾌하고, 가볍고, 명랑함’ 느낌을 준다.
- 예 방글방글-방글방글, 졸졸-줄줄, 살살-슬슬, 윽윽-윽윽
- ③ 음상의 차이는 어감을 다르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낱말의 뜻을 분화시키는 데에도 작용한다.
- 예 ① 덜다(減)-털다(拂), 뛰다(躍)-튀다(彈), 마당(庭)-마탕(場), 맑다(淨)-맑다(明)
- 맛(구미)-멋(풍미), 살(연령)-설(元旦), 낡다(朽)-늙다(老)

* 어휘상의 특징

- (1) 다량의 한자어 유입
- (2) 높임말의 발달
- (3) 감각어(感覺語)의 발달
- 이러한 감각어는 정서적 유사성(類似性)에 의해 비유 표현으로써까지 전용(轉用)되어 일반 언어생활에서 애용되기도 한다.
- 예 ◦ 사람의 특징을 표현할 때 : 아무개는 ‘짜다, 싱겁다, 가볍다, 무겁다, 맵다, 텁텁하다’
- (4) 상징어(象徵語)의 발달

* 구문상의 특징

- (1) 교착어적(膠着語的) 성질
- * 국어의 범주
- *계통상 : 알타이어
- *형태상 : 첨가어(添加語)·교착어(膠着語)
- (2) 어순(語順)의 특징
- ① 주어+목적어+서술어(결론을 맨끝에 진술함)
- ②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온다.
- (3) 주어·조사의 생략이 많다.
- (4) 주어가 둘 이상 나열되는 문장이 있다.
- (5) 관계 대명사, 관사, 전치사 등이 없다.
- (6) 대명사의 쓰임이 단순하다.
- (7) 문법적인 성(性)의 구별이 없다.
- (8) 단수·복수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4. 국어의 종류

* 사회성에 따른 종류

- (1) 표준어
- (2) 방언
- ㉞ 지역 방언 :
- 방언은 고어(古語) 연구에 자료가 된다.
 - 방언은 표준어에 대한 보충 자료가 된다.
- ㉞ 사회 방언
- ① 은어(隱語) : 특정한 집단 안에서 서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
- 예 왕조(거지 대장), 냉 걸(찬 밥), 세리간(경찰서), 밀판(얼굴), 마랍분다(단속반이 나왔다), 뽕당(수입금 유용), 깡사(이발사), 말뚝(장기 복무자), 가봉(假縫)한다(파트너 예비 심사), 벽계수(고고한 체하는 사람),심매마니(산삼 캐는 사람), 어인마니(노련한 채삼꾼), 모래미(쌀)
- ② 비어(卑語) : 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에서 사용하는 점잖지

- 못한 말로서, 청자 또는 제3자를 앞잡아 보아 쓰는 말이다.
- 예 대갈통(머리), 상판대기(얼굴), 아가리(입), 쪼다(바보), 곧상(아버지), 쪼겐다(웃는다), 쪽 팔리다(채면짜이다), 기름치다(너물음 주다)
- ③ 속어(俗語) : 일반 대중에 널리 쓰이나 정통 어법에 어긋나는 구어(口語)로서, 교육을 받은 계층에도 쓰인다는 점에서 비어와 다르고, 사용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은어와 차이가 있다.
- 예 공갈(거짓말), 큰집(교도소), 쇠·동그라미(돈)
- ④ 직업어, 계층어 :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다. 상업어, 사법어, 궁중어, 군대어 등이 있다.
- 예 ◦ 사법어 : 소송, 피고
- 상업어 : 마수걸이, 떨이, 파장
 - 군대어 : 진지, 교두보, 내무반
 - 궁중어 : 마마, 수라, 무수리

* 어원에 따른 종류

- (1) 고유어 : 본래부터 국어로 탄생하여 순수한 국어로 사용되는 우리말로 외래어·한자어에 상대되는 말.
- 예 해, 사나브로, 수고, 생각, 나무, 손방, 감냥, 글, 값, 옷, 장마, 피, 가람, 모꼬지, 동아리 등
- (2) 한자어 : 한자를 재료로 만든 단어
- 예 독립(獨立), 문장(文章), 의상(衣裳), 의식(意識), 치아(齒牙), 김치(沈菜) 등
- (3) 외래어 : 외국어가 국어 체계에 유입된 말
- ㉞ 귀화어 : 차용된 지 오래되어 고유어처럼 관용된 외래어로 외국어 의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말
- 예 ◦ 중국 한자가 어원 : 붓(筆), 먹(墨), 고추(苦草), 구역질(口逆→), 비위(脾胃), 반찬(飯饌), 자반(佐飯), 고약(怪惡), 마냥(每常), 배추(白菜), 종이(紙)
- 몽고어 어원 : 가라말(黑馬), 구렁말(栗色馬), 송골매(海東靑), 보라매(秋鷹, 추웅), 수라(御飯)
 - 범어(梵語) 어원 : 부처(佛陀), 미륵(彌勒), 열반(涅槃)
 - 여진어 어원 : 두만(豆萬, 두면)
 - 포르투갈어 어원 : 담배(tobacco)
 - 일본어 어원 : 고무마, 고무
 - 영어 어원 : 램프(lamp)
 - 네덜란드어 어원 : 고무
- ㉞ 차용어 : 아직 외국에서 왔다는 의식을 느끼게 하는 외래어
- 예 데모, 원피스, 아나운서, 렌즈, 펜, 넥타이, 우동, 금, 은, 귀신, 약, 종(鍾), 라디오, 텔레비전, 아나운서
- *외국어 : 차용어로 인정되지 않은 것
- 예 바캉스, 트러블(말썽), 트릭(속임수), 넘버(번호), 리더(지도자), 테스트(시험), 아르바이트(일, 일자리), 라이벌(적수, 맞수), 코스트(원가), 불륜(부피), 겹(툼)

*「고유어-한자어 이중 체계」

- * 고유어는 예사말이나 낮춤말로 한자어는 높임말로 쓰이는 경우
- 예 나이-연세(年歲)
- 이-치아(齒牙)
- 이름-성명(姓名), 성함(姓銜), 존함(尊銜), 함자(銜字)
- * 고유어와 한자어가 유의어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 *낱짐승 - 조류(鳥類)
- *값 - 가치(價値), 금액(金額), 가격(價格), 대가(代價)
- *글 - 문자(文字), 문장(文章), 문서(文書)
- *옷 - 의류(衣類), 의상(衣裳), 의복(衣服), 피복(被服)
- *생각 - 소감(所感), 상념(想念), 사상(思想), 이념(理念), 의식(意識), 견해(見解), 의견(意見), 의중(意中), 의사(意思),의향(意向), 의도(意圖), 심중(心中)
- *생각하다 - 사고(思考)하다, 사색(思索)하다, 사유(思惟)하다, 고

- 려(考慮)하다, 고찰(考察)하다, 궁리(窮理)하다, 구상(構想)하다.

*「고유어-한자어-서구 외래어 삼중 체계」

- 예 잔치-연회(宴會)-파티(party)
- 꼭대기-정상(頂上)-톱(top)
- 금-선(線)-라인(line)

고전 문법

11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

1. 자음

구분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1가획	2가획	
아음(牙音) 엄소리	ㄱ	ㅋ		ㅇ
설음(舌音) 혀소리	ㄴ	ㄷ	ㄸ	ㄹ (반혀소리)
순음(脣音) 입시울소리	ㅁ	ㅂ	ㅃ	
치음(齒音) 니소리	ㄸ	ㅌ	ㅆ	ㄷ (만니소리)
후음(喉音) 목소리	ㅇ	ㅎ	ㅎ	

- (1) 초성(初聲) 17자
- ① 기본자 : ㄱ, ㄴ, ㄷ, ㄹ, ㅇ
- ② 이체자(異體字) : ㅇ, ㄹ, ㄷ

- (2) 초성(初聲) 23자

전청음(全淸音) : 안울림 예사소리	ㄱ, ㄷ, ㅂ, ㅌ, ㅈ, ㅊ, ㅋ
차청음(次淸音) : 거센소리	ㅋ, ㅌ, ㅍ, ㅊ, ㅎ
전탁음(全濁音) :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 ㅊ
불청불탁음(不淸不濁音) : 울림소리	ㄴ, ㄹ, ㄷ, ㄹ, ㅇ, ㄷ, ㄷ

2. 모음(중성) 11자

- (1) 기본자 : 천(天), 지(地), 인(人) 상형
- (2) 초출자(初出字), 재출자(再出字) : 합성(조합) 원리

기본자	상형	初出字		再出字	
· (양성)	天	ㅏ	ㅑ	ㅓ	ㅕ
ㅡ (음성)	地	ㅗ	ㅛ	ㅜ	ㅠ
ㅣ (중성)	人				

- ‘·’ : 혀를 오므림[舌縮], 깊은 소리[聲深]
- ‘ㅡ’ : 혀를 조금 오므림[舌小縮], 깊지도 얕지도 않은 소리[聲不深不淺]
- ‘ㅣ’ : 혀를 안 오므림[舌不縮], 얕은 소리[聲淺]

- 그는 서울 지리에 발다.
이곳의 기후는 농사에 적합하다.
- (3) 세 자리 서술어 : 주어 이외에 두개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
주격, 목적격 조사 이외의 격조사를 가진 문장 성분이 필요하다. (수여 동사 - 주다, 보내다)
⇒ 주어 + 목적어 + 목적어/필수 부사어
- 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순이가 나를 손을 잡아끈다.

* **관계 관형절**: 문장 성분이 생략된 관형절

- (1) 부사어의 생략
- ① 성 주위에는 추억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있다.
 - ② 아무도 없는 강의실은 항상 썰렁하다.
- (2) 주어 생략
- ① 뒷다리가 긴 토끼는 산 위로 잘 달린다.
 - ② 넓은 들판에 벼들이 익어가고 있다.
- (3) 목적어 생략
- ① 그녀가 사준 스웨터가 참 마음에 든다.
 - ② 어머니께서 그리신 풍경화가 거실에 걸려 있다.

논리적 오류

(1) 심리적 오류 :

- ① 감정의 호소 : 동정, 연민, 공포, 증오 등의 감정에 호소해서 논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
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 ② 사적 관계에의 호소 : 정 때문에 논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
예) 넌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잖아. 네가 날 도와 주지 않는다면 난 누구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란 말이니?
- ③ 군중에의 호소 : 군중 심리를 자극하여 논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
예) 00 화장품은 세계의 여성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필수품, 00 화장품을 소개합니다.
- ④ 부적합한 권위에의 호소 : 논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권위자의 견해를 근거로 신뢰하게 하는 오류
예) 이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 화장품인 줄 아니? 그 유명한 000만 여자 탤런트도 언제나 이 화장품만 쓴다는 말 들어 봤지?
- ⑤ 인신 공격 : 주장하는 사람의 인품, 직업, 과거 정황을 트집잡아 비판하는 오류
예) 저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한 게 못 돼. 저 사람은 전과자거든.
- ⑥ 피장파장(역공격) : 비판받은 내용이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됨을 근거로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오류
예) 오히려 뭘 잘못다고 그래? 오히려 더 하더라 뭐.
- ⑦ 원천 봉쇄의 오류(우물에 독약치는 오류) : 반론의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원천적으로 비난하여 봉쇄하는 오류
예) 애, 빨리 가서 자야지. 늦게 자는 어린이는 착한 어린이가 아니야.

(2) 자료적 오류 :

- 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 제한된 정보, 부적합한 증거, 대표성을 결여한 사례를 근거로 일반화하는 오류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너 지금 행동하는 걸 보니 형편 없는 애구나.

- ② 잘못된 유추의 오류 : 비유를 부당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예) 컴퓨터와 사람은 유사한 점이 많아. 그러니 컴퓨터도 사람처럼 감정을 느낄거야.
- ③ 무지예의 호소 : 증명할 수 없거나 알 수 없음을 들어 거짓이라고 추론하는 오류
예) 귀신은 분명히 있어. 귀신이 없다고 증명한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거든.
- ④ 논점 이탈(무관한 결론)의 오류 : 논점과 관계 없는 것을 제시하여 무관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오류
예) 너희들 왜 먹을 것 갖고 싸우니? 빨리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 ⑤ 우연(원칙 혼동)의 오류 :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 다른데도, 이를 혼동해서 생기는 오류
예) 빌린 물건은 주인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 돌려 주어야 하는 법 아닌가. 그러니 그 친구가 화가 나서 자기 아내를 죽이려는 걸 알았지만 난들 어떻게 하겠나. 자기 칼을 돌려달라니 돌려 줄 수밖에. ⇨ 살인에 사용된 칼을 돌려 줌.
- ⑥ 의도 확대의 오류 :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생기는 오류
예) 아니, 그 사람을 벌금 3만 원만 받고 풀어줘요? 그 사람을 피하려다가 차가 충돌해서 두 사람이나 죽었는데, 그런 살인자를 가만 놔 두는 법이 어디 있어요?
- ⑦ 잘못된 인과 관계의 오류 : 단순한 선후 관계를 인과 관계로 추리하는 오류
예) 나 어제 회랑 데이트했지? 네가 뽕집에 들어간 지 10분쯤 뒤에 회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봤는데?
- ⑧ 결함, 분해의 오류 : 부분의 속성을 전체로 가진다거나, 전체의 속성을 부분도 가진다고 추론하는 오류
예) 나트륨이나 염소는 유독성 물질이야. 그러니 염화나트륨도 유독성 물질이지. ⇨ 염화나트륨은 독성이 없어. 그러니 나트륨이나 염소도 독성이 없긴 마찬가지지.
- ⑨ 흑백 논리의 오류 : 어떤 집합의 원소가 단 두 개밖에 없다고 여기고 추론하는 오류
예) 내 부탁을 거절하다니, 넌 나를 싫어하는구나.
- ⑩ 복합 질문의 오류 : 수긍할 수 없거나 수긍하고 싶지 않은 것을 전체하고 질문함으로써 수긍하게 만드는 오류
예) 자한테 한 표를 던져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3) 언어적 오류 :

- ① 애매어의 오류 :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진 말을 애매하게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오류
예)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 ②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 용어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재정의하여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오류
예) 그 친구, 정신 병원에 보내야 하는 것 아냐? 요즘 세상에 뇌물을 마다하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 ③ 애매문의 오류 : 어떤 문장의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오류
예) 그가 네 송배자라니, 너는 송배하는 사람도 있구나!
⇨ 송배의 주체가 '그'와 '너'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음.
- ④ 강조의 오류 : 문장의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여 발생하는 오류
예)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에 대하여 험담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에 대한 험담은 상관 없겠네요?"
- ⑤ 사용과 언급을 혼동하는 오류 : 사용한 말과 언급한 말을 혼동해서 생기는 오류
예) 고대사는 성경에 들어 있다. 성경은 두 글자로 된 말이므로, 고대사는 두 글자 안에 들어 있다.
- ⑥ '이다'를 혼동하는 오류 : 술어적인 '이다'와 동일성의 '이다'

- 를 혼동해서 생기는 오류
예) 신은 사랑이다. 그런데 진실한 사랑은 혼치 않으므로, 진실한 신도 혼치 않다.
- ⑦ 범주의 오류 :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을 같은 범주의 것으로 혼동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
예) 운동장이랑 교실은 다 둘러봤는데, 그럼 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학 일반

1. 문학의 특성

- (1) 개성 : 독특성
 - (2) 보편성 : 공시성
 - (3) 항구성 : 통시성
- *문학의 3대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 : 정서

2. 문학의 갈래

상위 갈래	하위 갈래
(1) 서정 양식 : 세계의 자아화	시
(2) 서사 양식 : 세계와 자아의 갈등	소설
	주로 과거 시대 사용
(3) 극 양식 : 세계와 자아의 갈등	희곡
	반드시 현재 시대 사용
(4) 교술 양식 : 자아의 세계화	수필

3. 문학의 기원설

(1) 심리학적 기원설

- ① 모방본능설(模倣本能說): 부정적 ⇒ 플라톤 '시인 추방론' 긍정적 ⇒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 ② 유희 본능설(遊戲本能說): 칸트, 실러, 스펜서 ⇒ 생명 보존 본능과 충족 보존 본능 + 정력(精力)의 과잉(過剩) ⇒ 유희[놀이] 본능
- ③ 흡인 본능설(吸引本能說): '다윈'과 같은 진화론자 ⇒ 남을 끌어들이려는 흡인 본능.
- ④ 자기 표현 본능설(自己表現本能說): 허드슨 ⇒ 자기를 표현하려는 본능에 의하여 창작된다는 것으로 낭만주의 문학 이론의 중요한 맥

(2) 발생학적 기원설(發生學的起源說)

- 그로세 ⇒ 실용성(實用性)에서 비롯

(3) 발라드 댄스설(Ballad Dance)

- 몰튼 ⇒ 심미성 + 실용성: 원시 종합예술(原始綜合藝術)

4. 문학 작품 감상하기

(1) 내재적 관점

- 절대론적(분석론, 구조론, 존재론): 작품의 구조, 구성, 의미, 운율, 상상, 주제, 수사법 파악 등.

(2) 외재적 관점

- 1) 반영론적 관점(모방론): 시대, 현실 반영.
- 2) 표현론적 관점(생산론): 작가의 인품, 환경, 일생.
- 3) 효용론적 관점(수용론): 독자의 느낌, 감동.

5. 미적 범주[미의식]: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

- (1) 송고미: 주체<대상 ⇒ 극복 의지, 살신성인, 소망
- (2) 비장미: 주체≠대상 ⇒ 이별의 정한, 맥수지탄
- (3) 우아미: 주체=대상 ⇒ 자연 친화, 대상의 아름다움
- (4) 골재미: 주체>대상 ⇒ 풍자, 해학

6. 문학 비평

(1) 비평의 방법

- ① 원론 비평: 문학의 각 분야에 관한 기본 이론을 수립하는 이론 비평
- ② 실천 비평: 원론 비평으로 수립된 이론을 적용하여 작가와 작품을 연구하는 실제 비평
- ③ 비평의 비평: 원론 비평의 이론을 검토하고 실천 비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평
- ④ 재단(裁斷) 비평: 작품을 비평할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작품의 우열을 평가하는 방법
- ⑤ 인상(印象) 비평: 작품에서 받은 주관적 인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행하는 비평

(2) 비평의 종류

- ① 역사주의 비평: 문학 작품을 역사적 산물 중의 하나로 보고, 작가의 생애·성격, 역사적 환경, 특정 민족의 정신 성향 등과 문학 작품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비평 ⇨ 발생적 오류(genetic fallacy)
- ② 사회 문화 비평: 역사주의 비평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점은 문학 작품에 대해 가치 평가를 내린다는 점. 역사주의 비평이 실증적인데 반해 사회 비평은 이념적이며 문학과 사회의 상호 의사소통적.
- ③ 형식주의 비평: 작품 자체의 예술성에 중점을 둔 비평으로, 문학 작품을 하나의 독립된 유기체로 간주하고, 그 자체를 하나의 총체적 세계로 보아 부분과 부분의 유기적 연결과 통일성을 연구. ⇒ 1920년대에 러시아에서 등장하여 미국 램스의 신비평으로 이어짐
- * 신 비평: 현대시 분석에 효율적.
- ④ 심리주의 비평: 프로이트(S. Freud)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비평에 도입한 것으로, 작가·등장 인물·독자의 심리 분석에 초점.
- ⑤ 원형 비평: 문학 작품의 구조 분석을 통해 인간사고의 공통양식을 찾으려는 비평 방법.

고전 문학사

1. 고대 문학의 개관

- (1) 국문학의 기원 :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였던, 원시 제천의식(祭天儀式) ⇒ 발라드 댄스설(Ballad Dance)
- (2) 집단적 서사 문학에서 개인적 서정 문학으로 전개.
- (3) 사상적 배경 : 무속신앙과 동물 숭배 사상(Totemism), 불교, 유교

2. 고려 시대 문학의 개관

- (1) 한문학의 융성 : 과거 제도의 실시, 국자감(國子監)과 학당(學堂)의 설치 등
- (2) 향가의 쇠퇴 → 국문학의 위축기

3. 조선 전기 문학(조선 건국 ~ 임진왜란 이전)

- (1) 진정한 의미의 국문학 형성: 훈민정음의 창제.
- (2) 운문 중심 문학:
 - ① 시조의 부흥, 경기체가의 지속, 약장문학의 형성, 가사의 발생
 - ② 양대 시가문학 : 시조와 가사
- (3) 양반 사대부 중심의 문학
- (4) 배경 사상 : 불교의 쇠퇴, 유교 중심(관념적·교훈적)

4. 조선 후기 문학

- (1) 문학 향유 계층의 확대
사대부 중심 문학에서 평민의 현실 비판 문학으로 전개
- (2) 운문 중심에서 산문 중심으로 전개.
- (3) 판소리와 민속극의 성행

고전 시가 문학

Ⅰ 향가

1. 작자층

승려, 화랑, 여인 등 다양하나, 현전 작품에는 승려와 화랑이 많음.

2. 기록 문헌

- ① 삼국 유사 : 14수(배경 설화와 함께 기록)
- ② 군여전 : 11수(보현심원가 : 10구체)
- ③ 삼대목 : 부전 - 신라 최대 향가집

3. 형식상 갈래

- (1) 4구체 : 민요나 동요가 항렬로 정착된 초기 형식.
 - * ‘도술가’는 순수한 개인 기록창작 향가이다.
 - 서동요(백제 武王), 풍요, 현화가, 도술가(월명사)
- (2) 8구체 : 4구체와 10구체의 과도기적 양식
 - 처용가, 모죽지랑가(득오)
- (3) 10구체 : 정제된 정형시. 완성된 양식
- (4) 기타
 - * 최초의 향가 : 서동요
 - * 10구체 향가의 효시 : 혜성가(용천사)
 - * 신라 시대에 지어진 마지막 향가 : 처용가
 - * 최후의 향가 : 고려 광종 때 군여대사의 ‘보현심원가’

4. 내용상 갈래

- (1) 민요의 정착 : 서동요, 풍요, 현화가, 처용가
- (2) 동요, 참요 : 서동요
- (3) 노동요 : 풍요
- (4) 주술적: 도술가, 처용가, 혜성가, 원가
- (5) 추모적 : 제왕매가, 모죽지랑가, 찬기파랑가
- (6) 화랑 예찬 :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 (7) 유교적 : 안민가(安民歌)

Ⅱ 고려가요

* 경기체가와 공통점: 3음보, 연장체[분절체], 후렴구, 향락적, 현실도피적

* 특징: 평민 문학, 다양한 음수율, 작자·연대 미상.

1. 주제(내용)상의 분류

- (1) 이별(離別): 서경별곡(西京別曲), 가시리, 동동
- (2) 연모(戀慕), 연군(戀君): 동동(動動), 정석가
- (3)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 쌍화점(雙花店), 만전춘(滿殿春), 이상곡(履霜曲)
- (4) 사친(思親, 효심) : 사모곡(思母曲), 상자가(相杵歌)
- (5) 현실도피(現實逃避)적 삶의 애환 : 청산별곡(靑山別曲)
- (6) 주술(呪術) : 처용가(處容歌)
- (7) 풍자(諷刺) : 유구곡(維鳩曲)

2. 기록 문헌

- * 고려 가요가 가장 많이 기록된 문헌 : 악장가사
- (1) 악장가사(樂章歌詞)
- (2) 악학궤범(樂學軌範): 사리부재
- (3) 시용향악보(時用鄉樂譜): 국조명
- (4) 악학편고(樂學便考)
- (5) 대악후보(大樂後譜): 영조 때 서영음이 편찬함.
- (6)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 : 40여 편의 작품명과 유래만

기록함.

*고려 시대의 문헌 : 「익재난고(益齋亂藁) 권 4」 역옹패설에 고려 가요 11편을 ‘소악부(小樂府)’라는 명칭으로 한역 기록함.

3. 향가계 여요(鄉歌系麗謠)

- * 도이장가(悼二將歌): 예종, 항찰로 쓰여진 마지막 작품.
- * 정교정곡(鄭郊亭曲): 정서, 10구체 - 삼진작(三眞作)
 - 유배문학의 효시
 - 한글로 기록된 고려 가요 중 연대와 작가가 분명한 유일한 작품

Ⅲ 시조

1. 명칭

- ‘단가(短歌), 시여(時餘), 신조(新調), 신변(新韻), 영언(永言), 국풍(國風)’ 등
- * 조선 영조 때 가객 이세춘이 시절가조(時節歌調)라는 명칭 사용. 신광수(申光洙)의 「석벽집(石北集)」에서 기록.

2. 주요 가단(歌團)

- ① 경정산가단: 영조 때 김천택과 김수장을 중심으로 형성.
- ② 노가재가단: 영조 때 김수장을 중심으로 형성.
- ③ 승평계: 고종 때 박희관과 안민영을 중심으로 형성.

3. 주요 시조집 :

- ① 청구영언(김천택): 최초 고시조집, 국조별
- ② 해동가요(김수장): 작자별
- ③ 가곡원류(박희관, 안민영): 국조별
- ④ 고금가곡(송계연월송): 주제별
- ⑤ 병외가곡집(이형상): 1109수 수록, 국조별
- ⑥ 남훈대평가: 순 국문 표기, 종장 마지막 구 생략.

Ⅳ 악장

* 갈래

- ① 한시체 · 한시현도체 : , 문덕곡(정도전), 봉황음(윤희) 궁수분곡(정도전) - 왜구 격퇴 찬양. 남새가(정도전) - 여진족 격퇴 찬양. 정동방곡(정도전) - 위화도 회군 찬양.
- ② 경기체가체: 상대별곡(권근), 화산별곡(변계량)
- ③ 속요체: 신도가(정도전), 감군은(상진)- 역군은이삿다
- ④ 신체: 용비어천가(정인지,권재,안지), 월인천강지곡

Ⅴ 가사(歌辭)

* 4음보, 서정 가사에서 서사 가사로 진행, 운문 문학에서 산문 문학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문학, 마지막 구 =시조 종장 음수율 (3,5,4,3)

1. 조선 전기 가사의 갈래

- (1) 서정가사 : 상춘곡(정곡인), 연양정가(송순), 성산별곡(정철), 목동문답가(이황), 낙빈가(이이)
- (2) 유배가사 : 만보가(조위), 사미인곡·속미인곡(정철), 낙지가(이서), 만연사(안조환), 북천가(김진형)
- (3) 기행가사 : 관서별곡(백광홍), 관동별곡(정철), 일동장유가(김인경), 연행가(홍순학)
- (4) 내방가사 : 선반가(권세), 규원가(허난설헌), 봉선화가(정일담), 사친가, 성녀가, 화전가, 유실경계사, 계녀가, 규중행실가, 부인요람, 여교전, 경부가, 석별가, 춘유가, 한별곡, 원한가
- (5) 박인로의 「노계가사(蘆溪歌辭)」
 - *전쟁(임진왜란) 가사 : 대평사, 선상탄
 - *안빈낙도 : 사제곡, 누항사, 독락당가, 영남가, 노계가

- (6) 현실 비판 가사 : 고공가(허전) - 나랏 일을 농사에 비유, 고공답주인가(이원익)
- (7) 실용가사 : 농가월령가(정학유) - 월령체
- (8) 평민가사 : 상사별곡, 권주가, 행군악, 양양가, 어부사, ~처사가, 황제사, 죽지사, 수양상가, 춘면곡, 백구사, 매화타령, 몽부가 - 변격가사
- (9) 불교가사 : 회심곡(서산대사) *서왕가
- (10) 도덕가사 : 권선지로가(조식), 자경별곡(이이)
- (11) 동학가사 : 용담유사(최재우)

2. 송강 가사에 대한 평가

- (1) 흥만중, 「순오지(旬五志)」
 - * 「사미인곡」 : ‘亦郢中之白雪(역영중지백설)’
 - * 「속미인곡」 : ‘可與孔明出師表(가여공명출사표)’
 - * 「관동별곡」 : ‘信樂譜之絶調(신악보지절조)’
- (2) 김만중, 「서포만필(西浦漫筆)」
 - * 「사미인곡」, 「속미인곡」, 「관동별곡」 : ‘左海眞文章三篇(좌해진문장 삼편)’, ‘동방(東方)의 이소(離騷)’
 - * 「속미인곡」 : 백미

고전 산문 문학

Ⅰ 고대 설화(說話)

1. 설화 문학의 전개

*고대 설화→패관 문학→가전체→고소설→신소설→근대소설

* 문헌 설화

- ① 고려 시대 : 동국이상국집-동명왕편(이규보), 제왕운기(이승휴), 삼국유사(일연), 삼국사기(김부식), 수이전(박인량), 패관 문학서
- ② 조선 전기 :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태평한화글계전(서거명)
- ③ 조선 후기 : 어우아담(유용인),
 - *청구야담, 동아취집, 계서야담 : 조선 후기 3대 설화집

Ⅱ 고소설의 갈래

1. 군당소설(영웅소설)

- (1) 역사 군당소설 : 임경업전, 임진록, 박씨전, 객재우전
- (2) 창작 군당소설 : 홍길동전, 유충열전, 조종전, 소대성전

2. 사회소설

홍길동전, 전우치전, 춘향전

3. 몽유소설

- (1) 몽유록계 소설 : 몽구부연록, 대관재몽유록, 원생몽유록
- (2) 몽자류 소설 : 구운몽, 옥루몽, 옥련몽

Ⅲ 판소리

1. 판소리의 성격

(1)구성 요소

- 1) 광대
 - └ 창 : 노래
 - └ 아니리 : 사설 - 장면 변화, 정경 묘사, 광대의 휴식
 - └ 발림, 너름새 : 연기
- 2) 고수, 관객 : 추임새(흥을 돋우는 소리)

(2) 곡조(원금의 가락)

진양조 ⇒ 중모리 ⇒ 중중모리 ⇒ 자진모리

(가장 느린 가락, 슬픈 가락) 명랑, 해학

⇒ 휘모리

가장 빠른 가락, 흥분과 긴장감

(3) 판소리 사설(辭說)의 문학적 특징

- ① 구전 · 적층적 성격
- ② 전문성 - 광대(전문적 소리꾼)에 의해 공연.
- ③ 장면의 극대화 - 더늠: 특히 잘하는 대목
- ④ 향유 계층의 다변화 - 양반, 평민
- ⑤ 주제의 양면성
 - ㉠ 표면적 주제 : 유교적 윤리 의식.
 - ㉡ 이면적 주제 : 평민 의식을 배경, 현실 풍자 및 해학.
- ⑥ 언어의 이중성 - 양반의 한시 · 한자어, 평민의 비속어.
 - ㉠ 문어체(文語體) : 한자어가 많이 사용된 국한혼용체.
 - ㉡ 구어체(口語體) : 우리말 위주의 일상적 문체 - 고유속담 및 관용어, 비속어, 방언, 의성어와 의태어 등이 골계적 장면에서 사용됨.

⑦ 운문체(율문체)

⑧ 비장미와 해학미의 반복

2. 작품

- (1) 판소리 12마당 :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변강쇠 타령, 장끼타령, 무속이타령, 옹고집타령, 배비장타령, 강릉매화타령, 숙영낭자타령
 - * 「적벽가」는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의 ‘적벽대전’ 부분이 판소리로 형성된 것이고, 나머지는 구전 설화가 연창된 것이다.
 - * 「숙영낭자타령」은 소설에서 형성되었다는 설과 설화에서 형성되었다는 두 견해가 있다.
- (2) 판소리 6마당 :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변강쇠 타령
 - ※ ‘신재효’가 개작·정리한 작품
- (3) 판소리 5마당 :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Ⅳ 민속극

1. 민속극의 종류

인형극(꼭두각시놀음) - 사당패에 의해 연희.
가면극(탈춤), 무극(굿놀이), 그림자극

2. 탈춤의 종류

- (1) 농촌형 탈춤 : 강릉 관노 가면극, 북청 사자 놀이, 하회 별신굿 놀이
- (2) 도시형 탈춤
 - ① 해서(海西) 탈춤: 강령탈춤 봉산탈춤, 은율탈춤,
 - ② 산대(山臺) 놀이: 중부 지방의 송파 산대(松坡山臺) 놀이, 양주 별산대놀이
 - ③ 오광대(五廣大): 경성 우도(右道)의 고성, 사천, 통영 등지의 오광대 놀이
 - ④ 야유(野遊, 들놀이): 경성 좌도(左道)의 동래, 수영 등지의 들놀이

3. 탈춤의 특성

민중성, 비판성, 골계성, 갈등과 화합의 반복(평화와 공존의 의식), 축제성

현대 문학사

I. 개화기 문학

1. 계몽 사상, 애국 사상, 신문명 예찬 등의 주제 의식
2. 신문학의 전개 및 현대 문학의 태동
 - (1) 시가 문학의 전개 : 개화 가사, 창가 가사
 - (2) 소설 문학의 전개 : 신소설이 등장, 민족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역사·전기 문학이 창작.
 - (3) 극문학의 전개 : 판소리의 대창 형식의 창극과, 신파극 전개.
 - (4) 연문 일치 운동의 전개 : 유길준의 「서유견문」

II. 1910년대 문학

1. 2인 문단 시대 : 최남선, 이광수
2. 계몽주의적 목적주의 문학의 전개
3. 연문 일치의 본격적 전개
4. 현대 문학의 태동
 - (1) 시문학
 - ① 신체시 등장 :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 ② 최초의 자유시 등장: 주요한의 「불놀이」
 - (2) 소설 문학 : 최초의 현대 장편 소설 - 이광수의 「무정」
 - (3) 서구 문예 사조의 도입
 - (4) 신파 운동의 전개

III. 1920년대 문학

1. 문학의 순수 예술성 추구
2. 다양한 문예 사조의 혼입기
3. 동인지 중심의 문예 활동
4. 연문 일치 [구어체] 확립
5. 계급주의 문학의 형성 ⇄ 국민문학 운동의 전개

IV. 1930 - 1945년의 문학

1. 동인지 문단 시대에서 사회적 [유파별] 문단 시대로.
2. 역사적 가치의 시대에서 예술적 가치의 시대로 전개.
3. 전후 문예 사조의 유입.
4. 참여 문학의 퇴조와 순수 문학의 전개

V. 1945년 이후의 문학

1. 문단의 좌우 대립
2. 전쟁 체험의 문학 전개
3. 서구의 실존주의 문학의 영향: 장용학(요한시집), 이범선(오발탄), 손창섭(비오는 날, 잉여 인간), 김성환(5분간)김춘수(꽃) 등
4. 모더니즘시와 전통 시향적 순수시의 양대 흐름 형성.

VII. 1960 ~ 1970년대 문학의 전개

1. 사실주의 문학 중심
2. 현실 참여 문학의 전개

사회 부조리·비인간화 현상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목적으로 하는 현실 참여적 성격의 문학이 본격적으로 전개.

 - (1) 시 문학 :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동기를 겪으며,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부패와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며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향.

→ 박두진(우리는 아직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김수영(푸른 하늘을, 폭포, 풀, 거대한 뿌리, 눈, 달나라의 장난), 신동엽(껌대기는 가라, 금강(錦江), 신동문(비닐 우산), 신경림(농무), 김지하(오적, 황톳길, 들

- 넋), 이성부(이 공동의 아침에, 이농(離農), 버랑 아래에서, 버), 김광섭(성북동 비둘기) 등.
- (2) 소설 문학 : 4·19와 5·16을 통해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지자 현실 비판적 자세를 보인 작품이 많이 발표.

→ 김정환(모래톱 이야기, 인간 단지), 손창섭(부부, 길), 이호철(소시민), 선우휘(망향), 전광용(깨배따리), 하근찬(야호, 왕릉과 주둔군), 이문구(장한몽), 방영웅(분례기), 유현중(불만의 도시), 최인훈(광장), 송기숙(자랏골의 비가), 이문구(관촌수필), 황석영(객지, 삼포 가는 길), 윤홍길(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조세희(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3. 민족의 비극과 분단 현실에 대한 심화된 인식

- 6·25 전쟁의 상흔으로 인한 인간의 비참한 삶, 남북이념의 대립 등을 사실적으로 증언하고 새로운 각도로 파악한 작품이 창작되었다.

→ 최인훈(광장), 황순원(나무들 비탈에 서다), 오상원(황선지대), 강용준(철조망, 밤으로의 긴 여로)

4. 순수 문학의 전개 - 서정주의(敍情主義) 문학

- 참여 문학의 강력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서정과 예술적 기교를 추구하는 문학이 꾸준히 창작되었다.

- (1) 시 문학 : 50년대의 전통적 서정시 작가들과 김종삼, 천상병, 문덕수, 정한모, 김남조, 조병화 등 이 이러한 경향을 전개하였다.

→ 정한모(가을에, 아가의 방), 조병화(의자), 김남조(겨울 바다, 설일, 너를 위하여), 이동주(혼야(婚夜)), 박재삼(춘향의 마음, 흥부 부부상), 김종삼(십이음계, 시인학교), 천상병(새, 귀천), 문덕수(선에 관한 소묘)

- (2) 소설 문학 : 인간의 삶과 인간 존재의 해명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묘사한 것으로서, 시대와 관계 없이 꾸준히 먹을 형성에 왔다.

→ 김동리(등신불, 늑, 윤사월, 을화), 오영수(머루, 후조, 메아리), 박영준(오늘의 신화, 종각), 박경리(시장과 전장, 김약국집 딸들), 강신재(임진강의 민들레), 김승옥(서울 1964년 겨울, 무진 기행), 서정인(후송, 강, 원우), 이청준(퇴원, 병신과 머저리), 박태순(연애)

5. 역사 소설

- (1) 비판적 역사 소설 : 역사(근대사를 주로 다룸)를 현실에 비추어 봄으로써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현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창작됨.

→ 안수길(북간도), 김정환(수라도, 어둠 속에서), 김성환(이성계), 서기원(혁명), 유주현(조선 총독부), 하근찬(족제비, 일본도(日本刀))
- (2) 민중의 삶에 근거한 민족사를 재인식한 대하 역사소설

→ 박경리(토지), 황석영(장길산)

한문법: 허사의 용법

1. 於

- (1) 처소, 장소(∼에, ∼에서)

一日之計在於朝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
- (2) 유래, 시발점(∼로부터, ∼에게서)

靑出於藍而靑於藍 (청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도 푸르다.)
- (3) 피동(∼에게 당하다)

勞力者は 治於人이라. (힘을 쓰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당한다.)

- (4) 비교(∼보다)

靑出於藍而靑於藍 (청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도 푸르다.)

· 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 國之語言 異乎中國이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 義莫大於君臣. (의리는 군신의 관계보다 더 큰 것이 없다.)

· 孝子之至 莫大乎尊親 (효자의 지극함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 (5) 대상, 목적(∼에게, ∼을, ∼에)

· 己所不欲勿施於人하라.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 吾十有五而志於學이라.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

2. 而

- (1) 순접(병렬) : ‘∼하고, ∼하면서’

·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 溫故而知新이면 可以爲師矣라.(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알면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
- (2) 역접 : ‘∼이지만, ∼이라도’

· 視而不見 聽而不聞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 樹欲靜이나 而風不止요, 子欲養이나 而親不待니라.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은 어버이를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 君子有三樂이나 而王天下는 不與存焉이니라.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나, 천하에 왕 노릇을 하는 것은 여기에 더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 博而不精, 精而不博, 衰而不悲, 衰而不傷 등

3. 之

- (1) 동사 : ‘∼에 가다’의 뜻

元扈之山上(설날 아침에 산의 정상에 오른다.)
- (2) 관형격조사 또는 관형형어미 역할

漁父之利, 大學之道, 惻隱之心, 香舟之魚, 積功之塔, 無用之辯 등
- (3) 대명사 : ‘이것, 그것’

· 學而時習之.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

· 得天下英才而教育之라.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그들을 교육시킨다.)

· 爲善者は 天報之以福이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그에게 복으로써 갚는다.)